

19.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난 시간에 선악과에 대해 이야기했다. 왜 선악과를 먹으면 안되는가? 연합이 안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안된다.

연합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연합을 통해서 완성되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만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연합으로 완성된다. 우리는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형상 자체로는 빈껍데기나 마찬가지다. 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이 있고 흙의 독특한 기능도 있지만 씨가 없으면, 농부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여자는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남자가 없으면 아기를 못낳는다. 모든 것이 그러하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완전하시다고 생각하는데 그 개념은 우리를 창조하심에 있어서 전능하시다는 뜻이지 그가 나타나시려면 꼭 연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파괴되면 우주 질서가 파괴되고 마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대만은 의도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을 다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자동차 공장은 없다. 자동차 부품을 연합시키려면 자동차 공장이 필요한데 자동차 공장이 없는 것이다. 자동차 하나를 만들려면 삼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는데 삼만 개의 부품이 있어봤자 연합이 안되면 소용이 없다. 삼만 개의 부품이 연합이 되면 자동차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 놓아도 운전자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 자동차가 스스로 갈 수 없다. 또한 운전자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안간다. 모든 것은 이렇게 연합을 통해서 완성되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것만 안되도록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형무소를 만들고 경찰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만 빗나가게 만들면 모든 것이 안되고 마는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결혼을 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 생명은 지식과 전혀 관계가 없다. 세상에 어떤 일도 지식 없이 된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는 지식이 전혀 소용없다. 이상한 일이다. 만일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도 지식이 필요하다면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은 자식을 많이 낳고 지식이 없으면 자식을 못낳게 될 것이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이 있는 아이를 낳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지식과 생명은 전혀 관계가 없다.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그것을 먼저 먹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위치를 이탈하게 되고 말았다. 다른 것은 다 하는데 연합이 안되는 것이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마지막 종착역은 바벨이다. 바벨은 분열이라는 뜻이다. 무엇을 했든지 간에 바벨로 가면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참 신기한 일이다.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왜 먹으면 죽는다고 했을까? 죽는다는 말은 단절된다는 뜻이다. 단절은 분열이다. 사람들은 선악과를 선하나 악하나 하는 도덕적인 문제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창조의 질서를 훼손해 버린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데 불편이 없으니까 이것을 모른다.

우리는 만들어진 대로 살고 있다. 그리고 거기 지식을 더해서 살고 있을 뿐이지 만들어진 것을 다르게 바꿀 수는 없다. 그래도 마지막 생육을 위한 생명의 연합의 길이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인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것이 다 끊어졌어도 결혼을 하기 때문이다. 서구 선진국가에서는 결혼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하는데 그것은 창조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다. 그렇다고 해도 남자와 여자로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씨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알고 보면 이것이 마지막 복음이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다. 이것만으로는 안되지만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된다. 별 것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공기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듯이 결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당연하게 있는 것이니까 없어도 될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인류는 끝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면 끝이다. 인공위성을 타고 달나라 별나라를 가면 뭐하겠는가. 생육과 번성이 안되면 끝난다. 그러니 성경 말씀은 얼마나 완전한지! 이런 말씀을 떠나서 어떤 말씀을 들어야 사람이 제대로 되겠는가. 이보다 완전한 말씀이 없다.

반면에 홀로 선다는 말보다 저주가 없다. 홀로 뚝뚝해지려 하고 간섭받기 싫어하고 연합하기 싫고, 그러면 고상할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은 죽음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묻는 첫 번째 물음이 이것이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위치를 묻는 것이다. “너는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것은 영원한 질문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다.

아담은 이에 대해 대답을 못하고 다른 대답을 한다. 아담이 뭐라고 했는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육신적으로 벗고 있으면 부끄러운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옷을 벗었다는 것은 자기의 신분이 없다는 말이다. “나는 위치가 없습니다.”라는 말이다. 신분이 없는 사람은 옷이 없다. 대제사장의 옷과 일반 제사장의 옷이 다르다. 대장의 옷과 중장의 옷과 소장의 옷이 다르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를 무어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신분을 만들려고 한다.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나는 교장입니다.”라거나 “나는 사장입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는 것이다. 국무총리에 있느냐 아니면 법무장관에 있느냐는 것이다.

세상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 없다. 자기도 위치가 없으니까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없다. ‘죄’는 위치를 벗어났다는 뜻인데 많은 사람들이 죄라는 말을 온전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생각한다.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도덕적인 문제를 회개하고 종교적인 문제를 회개하는 것이 전부다. 기독교는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가. 그러나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해도 어디 있느냐에 대한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왜 계속 되풀이하는가?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되풀이 하는 것이다. 위치가 없으니까 잘해도 그렇고 못해도 그렇고 마찬가지다.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할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한다고 하셨다. 우리는 일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알 텐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다는 것이다. 위치가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주인과 상관이 없다. 위치가 없는 사람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안한다. 자기 위치가 없으니까 할 수도 없다. 왜 위치를 이탈했는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자유할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할까.’ 이것이 인간의 소원이다. 자라면서 어떻게든 부모로부터 자유하려고 생각한다. 미국 사람들은 열여섯만 되면 대부분 집을 나가서 자립해서 산다고 한다. 세상으로 보면 그 나라 아이들이 강하다. 자립심이 생겨서 일찍부터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벌어서 살고 학교도 자기가 벌어서 다니고 대여 장학금을 받아서 졸업한 후에 갚는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부모가 대학까지 보내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죽을 때까지 A/S를 해 주려고 하지만 그런 것은 현대문명국가에서 보면 원시적인 것이다. 문명국가일수록 자립심이 있어야 살 수 있다. 그것이 위치를 이탈한 인간의 최선의 길인 것이다.

위치는 이탈되었는데 부모자식간의 위치는 그대로니까 모순이 생긴다. 잘하면 내 덕이고 못하면 조상 탓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은 선악을 아는 지식에 의해 움직이는데, 그것이 구조물이 되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부모자식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갈등이 굉장히 많다. 부모는 평생 자식을 위해서 살아도 좋은 소리를 못듣는다. 세상이 달라서 그렇다. 천국이라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은혜롭고 감사한 일인데 세상에서는 그것이 감사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인간이 불행한 것이다.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종교의 근본이 두려움이라고 한다. 사람의 의식 밑바닥에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시시대부터 종교가 있었고 자기보다 큰 것, 놀라운 것을 의지했다는 것이다. 큰 바위를 의지하거나 해나 달을 의지하거나 사람보다 능력이 있는 것을 의지했다는 것이 종교심리학자들의 말이다. 두려움이 없으면 종교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은 무언가 두려움이 있으니까 어디 의지하려는 것이다.

예수를 만나러 왔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 뭔가 불안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예수라는 독특한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안된다. 그런 세상에서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1장과 12장, 13장을 지나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 소문이 퍼졌고 마르다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 이것은 여자로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 것과 같다. ‘나는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요12:7).” 하셨다. 삼백 데나리온은 일 년분 임금에 해당된다고 하니 굉장히 비싼 물건이다. 가롯 유다가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좋을 것을 왜 발에 붓느냐?”고 했는데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이 자기의 장사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라 하셨다. 이렇게 될수록 그분은 죽음으로 간다는 말이다.

그 다음에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만나자고 하는 것을 보시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다. 헬라인들이 멀리서 예수를 찾아왔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놀라운 분으로 알고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좀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라고 온 것인데 환영한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가 되었다고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셨다(요12:27).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 기도

를 그때 하신 것이다.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다. 참으로 이상하다. 지금 인기가 절정이 이르렀는데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들은 점점 더 ‘예수를 살려두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굳어져 갔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에서 또 그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를 무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생각이 굳어지게 되었다. 인기가 높아질수록 예수님은 죽음으로 가게끔 된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라고 하셨다. 죽을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살면 안되고 죽어야 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는 할 수 없이 죽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이 위치를 떠나면 다른 세계를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위치가 있는 사람이 오면 가만 두지 않는다. 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자기 위치가 있고 한 사람은 자기 위치가 없다. 그래서 위치가 없는 사람은 위치가 있는 사람을 보면 두렵다. 위협이 되고 ‘이거 큰일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자기만 있을 때는 문제가 달랐는데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두려워 숨었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않아도 자기 위치에 있는 사람을 보면 자기가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두렵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은 신이 와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 행한 것이다. 어떻게 같은 사람인데 그분은 그런 이적을 행하실 수 있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신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쓰실 분에 의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 되게 하려고 사람을 지으셨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되게 하려고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저것은 사람으로서는 못할 일이니까 신이 한 것이다. 저분은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이다. 그래서 예수에게서 빛나가게 만들었고 탄 데로 빗겨가 버리고 만 것이다. 바로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 나면서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데 하나님이 내려와서 하시겠는가? 삼십팔 년된 환자를 안식일 날 고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 그럴 때 보면 하나님 같이 보인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 전등이 된다. 흙에 씨가 들어가서 자라면 밭이 된다. 옥수수 씨가 흙에 들어가서 옥수수 밭이 되면 흙은 안보이고 옥수수만 보인다. 그렇다고 흙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옥수수가 하늘에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니다. 흙에서 그것이 나온 것이다.

사람은 너무나 놀라운 존재로 지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과 비슷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놀랍다고 한다. 그러나 비슷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다. 비슷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도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출7:1).”라고 하셨다. 모세를 바로 앞에 신으로 세우셨다는 것이다. 바로가 볼 때 모세는 신이었다.

모세가 하나님처럼 생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신으로 세우신 것이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히브리서 1장은 이렇게 말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히1:3).” 그분을 하나님이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연합’, 이것이 비밀이다. 연합하면 하나가 된다는 것이 비밀이다. 그렇지만 연합한다고 둘이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다. 신학에 ‘칼케돈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본질은 하나지만 위격은 다르다는 것인데 굉장히 모순되고 어려운 문제다. 이론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되는 것이 형상과 생명, 형상과 실재다.

그 누렇게 익었던 옥수수 밭이 철수하고 나면 도로 흙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니 도로 흙이다. 누가 그분이 그럴 사람인 줄 알았겠는가. 물론 포도주를 만드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사람들은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며 비난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너무나 놀랍다. 하나님과 사람은 결코 화학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연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못하게 되었으니까 동산에서 추방된 것이다. 연합이 안되면 추방되어야 한다. 생명의 동산이니까 연합될 수 없는 것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동산에서 추방하신 것이다. 영생하면 안된다는 말이다.

영생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다는 뜻이다. 알고 보면 연합이 구원의 목표

다. 구원은 어디까지,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가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되는 것도 아니다. 연합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칼빈의 구원론의 원칙이고 목표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다 빠져 버리고 없다. 무엇이 되어야만 구원인 줄 안다. 그러나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할 수 있으면 그것이 구원이다.

남자와 여자가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면 그것이 사람이 완성된 것이다. 결혼하면 성인이 된다는 말이 그것이다. 옛날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상투를 올리지 못하고 땀을 땀아야 했다. 그리고 누구에게라도 하대를 받았다.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었다. 왜냐하면 사람이 덜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연합이 안되었으니까 사람이 덜 된 것이다.

그래서 동산에 있지 못하게 추방하셨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불칼과 천사들을 두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다. 연합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키게 하셨다.

사람은 선악과를 먹었다. 자기 위치를 이탈해 버려서 본분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자기 일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래서 두렵게 된 것이다. 요즘 회사에서는 해고를 시킬 수 없으니까 책상을 치워버린다고 한다. 그러면 아침에 출근해도 자기 책상이 없다. 아무 일도 시키지 않는다. 집에서는 분명히 회사에 간다며 출근을 했는데 회사에 오면 자기 자리가 없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나 피우고 놀다 온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루 이틀이지 집에서 나오면서 맨날 거짓말만 할 수도 없으니까 오래 못견뎌한다고 한다. 해고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위치를 이탈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사람은 왜 이러냐 저러냐 하는 문제들이 모순된 것이다. 계급장이 떨어지면 일도 떨어진다. 장군 계급장이 떨어졌는데 계속 별판을 달고 다니면 되겠는가. 장군 차 앞에는 별판이 붙어 있다. 그 차가 지나가면 군인은 누구든지 경례를 해야 한다. 그러니 장군이 아닌 사람은 장군 차를 타지 못한다. 별 하나에 주어진 임무가 다르고 둘에 주어진 임무가 다르다. 임무가 다른 만큼 권세와 권위가 있다. 별이 떨어지면 권세와 권위도 다 없어진다.

“하나님이 왜 이러는가?”라고 할 일이 아니다. 위치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가. 위치가 있는 사람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준 것이니 위치를 떠나 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 회사에 있을 때는 중역이었고 자기 밑에 부하들도

많아서 자기가 계획한 것을 실행할 수도 있었지만 회사를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못한다. 떠나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문제는 일반 회사에 가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잘 알아도 회사 생활도 잘할 수 있다. 자기 위치만 정확히 알면 일도 잘할 수 있다. 이것을 모르고 덤벙거리는 사람은 얼마 못가서 나가야 한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안된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핑계를 댔고 여자는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뱀에게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흠을 먹고 살라고 하셨다. 뱀이 흠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닌데 땅에 기어다니니까 흠을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인다.

땅에 기어다닌다는 것은 굴욕스럽다는 뜻이다. 선악과를 먹여 놓았는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다는 것이다.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을 멸시한다. 그리고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을 멸시한다. ‘네가 뭐라고 잘난 체하느냐.’며 경멸한다. 뱀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자기가 굴욕을 당하는 것이다. 그런 세계를 만든 사람은 그런 세계의 굴욕을 자기가 당하게 되어 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칼잡이는 결국 칼에 죽고 총잡이는 총에 죽는다는 뜻이다. 뱀이 그렇게 되었다. 자기가 만든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하셨다. 다른 짐승들은 해산의 고통이 크지 않은데 사람만 유독 해산의 고통이 크니까 말인데 해산은 다른 동물도 다 어려운 것 같다. 토끼가 새끼를 낳을 때 사람이 보면 뒤로 돌아서 새끼들을 다 잡아먹어 버린다. 개도 사람이 잘못 건드리면 새끼를 다 죽여 버린다. 그러니 얼마나 긴장하는 시간이었는가. 다른 짐승들에게도 해산의 고통이 있는데 사람만 유독 해산의 고통이 심하다. 그것을 빙자해서 한 말인데 무엇을 낳기 어렵다는 말인가? 그리스도를 낳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위치가 있는 사람을 낳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하와가 아담과 동침해서 위치가 있는 사람을 낳겠는가? 아담은 위치가 없는 사람이니까 위치가 없는 사람을 낳는다. 그러니까 제대로는 그리스도를 낳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를 낳은 마리아를 향해 성령을 잉태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어떻게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겠는가?

그런데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마1:20-21).” 하였다. 이 사람이 예수다. 이 사람을 낳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기를 낳기도 어렵지만 이 사람을 낳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다시 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연단을 받아야 되고 수모를 당해야 되는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연단을 받게 된다. 부름받았어도 그냥 되지 못한다. 여자가 낳았으니까 그냥은 안된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이삭은 연단을 받은 일이 없다. 그런데 야곱은 연단을 받아야 했다. 아담과 하와가 합해서 낳은 아들은 연단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없어질 것이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연단이 불가피하다. 제 위치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연단은 아주 값진 것이다. 우리를 원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니깐 연단이 없이는 될 사람이 없다.

아담에게는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라고 하셨다. 그를 도와야 할 땅이 그로 인해 저주를 받아서 그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다. 왜 땀이 흘러야 한다고 하셨는가? 농사를 짓고 일을 하려면 땀이 흐른다. 그것을 빙자해서 하신 말씀이다.

인생의 수고가 무엇인가? 가장 어려운 수고, 가장 중요한 수고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개발이다. 인생은 자기를 개발해야 되고 자기 의를 만들어내야 된다. 위치가 없기 때문에 위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영원한 위치가 아니지만 우선 세상에 살면서 자기 위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위치가 없는 사람은 살 수 없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다 자기 개발이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피나는 노력을 겪고 자기 위치를 만드는 것이다. 먹을 것도 제대로 못먹고 결혼도 못하고 홀로 살면서 수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수도(修道)는 자기 수양, 자기 개발이다. 그렇게 안하면 짐승처럼 되니까 수도를 해야 한다. 사람의 수고의 마지막은 자기 문제다. 자기 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를 개발한다는 것이 도로 자기다.

하나님은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고 하였다. 그래서 땅을 계속 갈아서, 자기를 계속 갈아엎어서 무엇을 만들려고 생각한다. 그러나 씨가 없다. 아무리 논밭을 갈아봤자 씨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씨가 있어야 농사가 될 텐데 밭만 계속 갈게 하셨으니 그것이 저주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다. 한편으로는 허무하다. 자기를 아무리 뒤집고 또 뒤집어봤자 씨가 없으니 나올 것이 없다. 그러니 마지막은 허무하다. 인생을 산 것이 먹고 입고 산 것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 자기 의를 자기가 가지고 가겠는가, 자기가 개발한 것을 자기가 가지고 가겠는가?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 허무하다.

그 허무한 인생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신 것을 나는 은혜라고 생각한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다. 벽돌이 되어 버리면 끝이다. 자기 개발을 하다 보면 자기를 벽돌로 만든다. 그렇게 되면 멸망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 흙으로 돌아가면 다시 기회가 있다. 살기는 허무하게 살았지만 돌아가면 다시 기회가 있다. 지금까지 허무하게 산 인생이라도 돌아오면 다시 가능성이 있다. 흙이니까 가능성이 있다. 벽돌만 안되면 된다. 벽돌이 되어 버리면 끝이다. 견고하고 자격이 확실하고 자아가 확실하지만 생명의 세계에서 벽돌은 쓸모가 없다.

동산을 나온 아담에게는 영생의 길이 없다. 왜 없는가?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연합이 없어졌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없으니까 영생이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라고 물었다.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위치가 회복되는 것이 영생이다.

위치의 회복되어야 사명이 회복된다. 사람의 위치가 회복되면 사람으로서의 임무가 주어진다. 그것이 살아나는 것이다. 위치가 회복되면 동산이 회복되고 동산이 회복되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영역을 경작할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살아 있는 사람이고 부활한 사람이다. 사명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다.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어디서 이 연합이 이루어지겠는가? 어디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연합되겠는가, 어디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겠는가, 어디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겠는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하다.

십자가가 없이는 모든 것이 미완성이다. 아무리 왔어도 미완성이고 전부 다 미완성이다. 아브라함이 달려온 길이 헛일이 된다. 부름받은 것이 헛일이 된다.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을 축복한 것이 헛일이 된다. 야곱이 그렇게 오랫동안 연단을 받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잃었던 것이 다 헛일이 되고 만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를 한

것이 헛일이 되고 만다. 완성이 안되면 모든 것이 헛일이다.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없으면 농사지은 것이 헛일이 된다.

사라호 태풍 때 농작물이 완전히 못쓰게 된 것을 보았다. 내가 살던 지방은 섬이었으니까 제방을 쌓고 논을 만들었다. 서해안에는 그런 간척지가 많다. 김제, 만경 쪽이다 간척지다. 뿔로 된 흙은 짠 물만 빠지면 논이 되니까 제방만 쌓으면 엄청나게 논이 많아진다. 새만금사업이 그런 것이다. 그런데 사라호 태풍이 왔을 때 만조일 때 바람이 불었다. 만조에는 막아놓은 둑위로 물이 찰랑찰랑하는데 그때 태풍이 와서 둑이 무너져 버렸고 바닷물이 농지로 들어와 버렸다. 다음날 아침에 산에 올라가서 보니 논이 새카맣게 되었다. 벼가 익으려고 할 때였는데 짠 물이 들어와 버리니까 새카맣게 된 것이다. 아무리 잘 키워놓았어도 열매가 없으면 허망하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다. 동시에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다. 동시에 우주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다.

그 십자가를 왜곡시켜서 딴 길로 빠지게 만들었다. 인류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빼 버린 것이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아들을 죽게 하셨다느니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느니 하며 왜곡시켜 버렸다.

칼빈은 연합이 구원의 목표라고 했는데 어떻게 연합이 되는지를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막막하게 되고 말았다.

어떤 사람들은 성화가 되면 연합한다고 했지만 성화가 쉽게 되는가? 얼마만큼 성화가 돼야 연합이 되는가?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니 경건하게 산다. 내가 직접 보았는데 그렇게 살기 어렵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연합이 되겠는가?

그래서 다음에 그것을 수정하고 나온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는 이미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누리면 된다는 것이다. 쉬운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더욱 불가능한 것이다. 차라리 성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희망이라도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미 화해가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말은 불가능한 말이다. 십자가가 왜곡되었다. 주님이 거기서 이루신 일이 왜곡되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 왜곡되어 버렸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다. 인간의 목적이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인간을 도로 찾으셔야 한다. 창조한 사람을 그대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과제다. 목표고 소원이고 갈망이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이 아들의 일이다. 사람의 일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되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이 셋을 다 완성하신 것이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

이 이상 다른 복음은 없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더 이상의 다른 복음이 없다고 알아야 한다.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 다 이루었는데 누가 무엇을 또 다시 이루겠는가? 다 이루었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고 이것이 회복되면 되지 무엇을 또 다른 것을 만들겠는가? 더 이상은 만들 수 없다. 창세기 3장이 원 위치로 회복되려면 꼭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필요하다. 이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것이 아니면 안된다. 다른 데 가면 헛갈린다.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해 보면 안된다. 나도 하는 데까지 해 보았다. 해 보고 안되니까 하는 말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복음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말이 다 이 말 때문이니까 이것이 안되면 소용이 없다. 다른 것은 있으나마나다. 농사를 짓다가 만 것과 같다. 벼가 익으려고 하는데 짚물이 들어와서 시커멓게 썩어 버리면 무엇이 되겠는가? 아무것도 없다. 죽어 버리면 성장과정이 소용없다. 시커멓게 되어 버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길을 벗어나면 고생이다. 되지 않을 일을 한다고 애를 쓰게 된다. 안해 본 사람은 '꼭 그렇다고만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로 예수를 믿어 보려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 보려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복음이다. 그럭저럭 살다 죽으려면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피조물로 태어나서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 보려면 이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안된다.